

# 한인 이주민의 정착과정에서 한인네트워크 역할 및 활용 방안\*

- 미국 LA지역 한인 이주민 사례를 중심으로 -

박 원 석\*\*

## The Role of Korean Ethnic Networks in the Settlement Process of Korean Immigrants and Their Utilization Measures : A Case Study of Korean Immigrants in Los Angeles\*

Park, Wonseok\*\*

**요약** : 본 연구는 미국 LA지역의 한인 이주민 사례를 통해, 한인 이주민의 정착과정에서 한인네트워크 역할을 살펴보고,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국으로의 최초 이주 및 주거지 선정과정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한인네트워크와 민족공동체인 한인타운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한인네트워크의 역할은 최초 이주지가 LA지역인 집단, 초기 정착지가 한인타운인 집단, 현지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50대 이상의 고령자인 집단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로, 응답자들은 한인네트워크를 종교활동, 쇼핑활동, 경제활동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주기간이 짧고, 고령이고, 영어능력이 부족하여 미국 주류사회에 편입이 어려운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로, 한인 이주민의 한인네트워크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응답자들은 한인네트워크를 미국 주류사회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로,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으로, 한인교회, 한인 경제단체, 한민족포털, 재외공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이주민, 정착과정, 한인네트워크, 공간적 동화, 한인타운

**Abstract** :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role of Korean ethnic network in the settlement process of Korean immigrants, and elucidating their utilization measures, through the case Study of Korean Immigrants in LA.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majority of respondents used Korean ethnic networks and Korean town in the immigration proces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OVA test, Korean ethnic network are more importantly considered by the groups such as elderly, livers in Korean town, and people who the first settlement was LA. Secondly, respondents more frequently use Korean ethnic network in the activities such as church, shopping and business. Especially, the groups such as short immigration term, elderly, poor English ability are more frequently use Korean ethnic network. Thirdly, Viewing the cognition of respondents about the necessity of Korean ethnic networks, respondents want to use them for strengthening the ties of domination society. Finally, utilization of Korean ethnic churches, Korean ethnic business organizations and Korean ethnic web-site portal are proposed for activating Korean ethnic networks.

**Key Words** : Immigrants, Immigration Path, Korean Ethnic Network, Spatial Assimilation, Korean Town

### 1. 서론

지금까지 많은 한국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 한인 이주민들을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에 비유하여 코리언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이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한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 한인 이주민들은 세계 각국에서 정착하고 적응하면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

하고 있으며, 이제는 현지 국가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제의 세계화 추세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인력과 물자의 국제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민족의 인적자본의 네트워크화라는 차원에서 한인 이주민의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즉, 이주민이 단순히 해외에 머무는 동포가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화된 한민족의 유용한 자산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10 11726)

\*\* 대구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Real Estate, Daegu University)(wspark@daegu.ac.kr)

##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 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세계화 시대에서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해 해외 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한민족공동체 그리고 해외 한인들을 포함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한인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한상네트워크와 같은 글로벌 한인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윤인진, 2012)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개방과 교류의 시대에 들어섰고, 따라서 이러한 개방화 시대에 한인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어느 때보다 절실했다. 따라서 이러한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과적인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한인 이주민의 정착과정과 이러한 정착과정에서 한인네트워크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인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글로벌 시대의 네트워크 인프라로서 한민족 네트워크의 효과적인 작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미국 LA지역의 한인 이주민 사례를 통해, 한인 이주민의 정착과정에서 한인네트워크 역할을 살펴보고, 한민족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한인네트워크의 활용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한민족 네트워크의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서 재외 한인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묶을 수 있는 한민족 네트워크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본 연구 성과가 이를 위한 중요한 정보 인프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한민족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 성과의 응용을 통해, 재외 이주민의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고, 재외 이주민의 주거복지 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들의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데도 본 연구가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인 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 지리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주민이 현지 국가에 이주하고, 적응하고, 정착하는 과정은 본국과 이주국 모두에게 중요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한인 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에서 연구가 되어 온 것이다.

한인 이주민 연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인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다. 한인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한인 이주민간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관계에 대한 연구와, 한인의 주거와 경제활동이 집중된 소수 민족공동체(ethnic enclave)인 한인타운에 대한 연구를 포괄한다. 특히, 이주민의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이주민 민족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주민들의 주거이동 패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이론으로 정립한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간적 동화(spatial assimilation) 이론<sup>1)</sup>이다. 공간적 동화이론은 이주민들이 이민국의 지배사회의 삶의 양식과 습성을 채택하고, 유사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주거입지의 선택에서 주류사회의 네트워크가 있는 곳으로 주거지를 이동하려는 시도, 즉 공간적 동화를 시도한다는 이론이다. 이주민이 정착과정에서 처음에는 이민국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선 자기와 유사한 인종 또는 민족이 모여 있는 민족공동체에 접근하지만, 이주국가의 사정을 학습하고 영어구사 능력이 향상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기존의 민족공동체를 벗어나 주류사회에 편입하려는 과정에서 공간적으로도 주거지를 이동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적 동화이론에 따르면, 한인네트워크의 역할은 이주민이 이주 초기에 정착해서 공간적 동화를 시도하기 이전까지 일시적인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인네트워크는 신규 이주민이 진입하고, 그 이주민이 공간적

동화를 통해 백인 거주지로 이주하면, 또 다른 신규 이주민이 진입하는 과정이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인네트워크 또는 한인타운은 이주민의 일시적 거주지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신규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물갈이되는 불안정한 거주공간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반면, 이주민의 정착과정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으로 문화적 다원론(pluralism)이 있다. 다원론에 따르면, 이주민은 정착과정에서 지배집단의 제도와 문화에 동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소수 민족으로서 민족적 차이를 유지하거나 또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이론이다. 즉, 각각의 이주민 민족집단은 정착과정에서 문화적 다원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간적으로 분리된 민족공동체(ethnic enclave)를 구성하고, 이러한 민족공동체 내에서 독립적인 학교, 사업체, 교회 등과 같은 시설들을 갖고 있고 이들의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이곳에서 보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다원론의 관점에 따르면, 한인네트워크는 이주민의 일시적인 거주지가 아니라 항구적인 거주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이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현지 사정에 익숙하더라도 여전히 한인 문화와 음식, 공동체 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전히 한인타운에 거주할 것이고, 따라서 한인타운은 한인 이주민의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공간적 동화이론과 문화적 다원론을 종합하면, 한인 이주민들은 현지 사정을 학습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개인의 인적 특성과 준거집단의 성격에 따라 주류사회로 편입하려는 움직임과 여전히 민족공동체에 남아 있으려는 움직임이 공존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인네트워크의 역할은 개인의 인적 특성과 준거집단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인네트워크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국내 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인진(2003)은 재미한인을 대상으로 한인의 적응과정을 고찰하면서, 재미한인의 사회문화 적응 모델을 유형화했는데, 연구결과를 보면, 재외한인의 적응유형은 이주 초기에는 고립형이 지배적이지만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용형과 동화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인 3,4세 이상으로 넘어가면 거주국 주류사회에 참여하고 타인종/민족과 혼인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결국 동화형이 더욱 우세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성석(2006)은 LA와 뉴욕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한인사회단체의 유형과 활동을 살펴보고, 한인사회단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종교단체나 사회봉사단체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었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단체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미한인들은 단체 활동에 소극적이었으며, 친목도모 등의 개인적인 동기에서 참여하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단체참여자들은 단체 활동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단체참여의 유무가 응답자의 평가의 고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인사회단체를 매개로 한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였다.

전형권(2012)은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차세대 네트워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정부의 차세대 네트워크 사업이 갖는 문제점으로는 일회성인 초청행사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 사후관리 등 후속 프로그램의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향후 차세대 네트워크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첫째, 유기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고 현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둘째, 느슨한 연결을 보이는 차세대 네트워크의 유연한 특성을 활용하여 현지 한인사회와 주류사회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셋째, 온라인 매체에 친숙한 차세대의 선호를 반영하여 지역별, 직능별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양진운(2011)은 미국 LA지역의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이주민의 이민 초기 적응과정과 경험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한인 이민자들은 초기에 두려움이라는 중심현상을 겪으며, 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 자기적응 시도와 적극적 활동 추구 전략을 지향하여, 그 결과 성취, 갈등, 좌절이라는 결과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초기 이민 적응과정을 미래지향형, 현실적응형, 갈등형, 자포자기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전(2008)은 미국 애틀란타의 한인 2세를 대상으로 한인들의 교회활동과 정체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미국의 한인교회들은 본연의 종교적 기능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는데, 한인 2세의 경우 미국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한인교회에 참석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인교회들은 영어예배 등으로 한인 2세와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인교회와 한인 2세의 관계는 미국의 한인네트워크의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잣대임을 밝히고 있다.

안현호·정연선(2006)은 캘리포니아의 중국계와 한국계의 양 소수민족은행을 비교하여 한국계 민족은행과 한국계 이민사회의 경제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한국계 은행의 경우 대출구조가 사업대출 중심이며, 요구불예금의 비중이 중국계 민족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러한 요인은 한국계 소수민족은행이 높은 성장을 하게 된 배경이 됨을 밝혔다.

## 2) 연구방법 및 자료

앞서 연구목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LA지역의 한인 이주민을 사례로 하여, 한인 이주민의 정착과정에서 한인네트워크의 역할을 분석하고 활용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본 연구에서는 LA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기본적인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미국 LA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이주민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대면 면접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총 254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는데, 그 중 본 연구에 활용된 유효한 설문지는 총 225부<sup>2)</sup>다. 본 연구의 설문내용은 응답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 최초 이주현황에 관한 사항, 현 주거지에 관한 사항, 한인 커뮤니티(한인타운) 활용에 관한 사항, 한인 커뮤니티(한인타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한인 이주민들이 생각하는 한인타운 및 한인 네트워크에 대한 심층적인 견해들을 수집하기 위해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러

한 인터뷰 조사결과는 설문분석 결과 해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설문결과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수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응답자의 인적 특성, 초기 이주 현황 및 이주경로, 현재 거주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척도분석을 통해 응답자들의 현재 한인네트워크를 분야별로 얼마나 활용하는 지 그리고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별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산분석은 응답자의 최초 이주시 고려요소에 대한 척도분석, 응답자의 한인네트워크 활용 현황에 대한 척도분석, 그리고 한인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척도분석 결과가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분산분석 결과를 통해 각각의 한인네트워크 활용 및 활성화 방안의 선호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주민의 인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규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인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차별적이고 맞춤형 정책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3. 기술통계 분석결과

### 1) 응답자의 인적 특성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응답자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우선, 응답자의 연령대를 보면, 50대 34.3%, 60대 이상 20.4%, 40대 19.6% 순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성별을 보면, 남자가 58.7%, 여자가 41.3%로 나타난다. 응답자의 혼인여부를 보면, 기혼이 78.2%, 미혼이 21.8%로 나타난다. 응답자 중에서 40~50대의 비중이 높고 기혼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본 설문조사가 기본적으로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가구소득을 보면, 10~20만 달러 28.0%, 6~10만 달러 23.1%, 3만~6만 달러 22.7% 순으로 나타나는데, 따라서 응답대상 한인 이주민들은 상당수가 소득기준으로 미국의 중산층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응답자의 가구자산 규모를

표 1. 응답자의 인적 특성

연령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응답자수	17	41	44	77	46	225
비율(%)	(7.6)	(18.2)	(19.6)	(34.2)	(20.4)	(100.0)
성별	남자		여자			합계
응답자수	132		93			225
비율(%)	(58.7)		(41.3)			(100.0)
혼인여부	미혼		기혼			합계
응답자수	49		176			225
비율(%)	(21.8)		(78.2)			(100.0)
가구 소득	3만달러 미만	3만~6만 달러	6만~10만 달러	10만~20만 달러	20만달러 이상	합계
응답자수	34	51	52	63	25	225
비율(%)	(15.1)	(22.7)	(23.1)	(28.0)	(11.1)	(100.0)
자산 규모	30만달러 미만	30만~60만달러	60만~100만달러	100만~200만달러	200만달러 이상	합계
응답자수	100	39	40	27	19	225
비율(%)	(44.4)	(17.3)	(17.8)	(12.0)	(8.4)	(100.0)
학력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졸	합계
응답자수	29		157		39	225
비율(%)	(12.9)		(69.8)		(17.3)	(100.0)
미국 교육이력	없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합계
응답자수	113	31	15	51	14	224
비율(%)	(50.4)	(13.8)	(6.7)	(22.8)	(6.3)	(100.0)

보면, 30만 달러 미만이 44.4%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따라서 응답대상 한인 이주민들은 현재 가구소득은 평균적으로 중산층 수준을 유지하지만, 자산축적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응답자의 최종 학력을 보면, 응답대상 한인 이주민들의 대부분은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임을 볼 수 있다. 응답자의 학력 중에서 미국에서 교육받은 이력을 보면, 미국에서 학교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응답자는 50.4%로 절반에 이르고, 나머지 절반은 어떤 형태든 미국에서 학교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대학교부터가 22.8%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부터 라는 응답도 13.8%에 이른다.

## 2) 응답자의 최초 이주 현황

다음으로 미국으로 최초에 이주했을 당시의 응

답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우선, 응답자가 미국으로 이주할 시 최초 이주지역을 보면, LA지역이 58.7%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LA지역에 최초로 이주하여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LA지역은 한인 이주민이 최초로 정착하는 관문도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착과정에서 타 지역의 한인 이주민을 끌어 모으는 2차 흡수도시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응답자의 최초 주거지를 보면, 백인주류층 거주지역 43.1%, 한인타운 41.8% 순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최초 거주지로 민족공동체(ethnic enclave)를 활용할 수 있는 한인타운을 선택하든지, 양질의 주거환경과 주류사회와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백인주류층 거주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이주당시 연령을 보면, 20대

표 2. 응답자의 최초 이주 현황

최초 이주지	LA지역			LA지역 외			합계
응답자수	132			93			225
비율(%)	(58.7)			(41.3)			(100.0)
최초 주거지	한인타운	미국주류층		유색인종	기타		합계
응답자수	94	97		27	7		225
비율(%)	(41.8)	(43.1)		(12.0)	(3.1)		(100.0)
이주시 연령	미국출생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응답자수	8	39	80	61	27	10	225
비율(%)	(3.6)	(17.3)	(35.6)	(27.1)	(12.0)	(4.4)	(100.0)
최초 영어능력	매우 부족	부족		보통	능숙	매우 능숙	합계
응답자수	48	109		48	13	6	224
비율(%)	(21.4)	(48.7)		(21.4)	(5.8)	(2.7)	(100.0)
이주 기간	미국출생	1년 미만	1-5년	5-10년	10-20년	20년 이상	합계
응답자수	8	1	20	27	58	111	225
비율(%)	(3.6)	(0.4)	(8.9)	(12.0)	(25.8)	(49.3)	(100.0)
최초 현지인 도움	도움 받음			독자적 결정			합계
응답자수	172			53			225
비율(%)	(76.4)			(23.6)			(100.0)

35.6%, 30대 27.1% 순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경제활동 능력이 왕성한 30대 이하에서 LA지역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50대 이상의 황혼 이주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응답자의 최초 이주시 영어구사 능력을 보면, 부족 48.7%, 매우 부족 21.4%로 나타나,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영어능력이 충분하지 상태에서 이주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이주기간을 보면, 20년 이상 49.3%, 10~20년 25.8% 순으로 나타난다. LA지역의 경우 한인의 이주역사가 오래된 만큼, 이주기간이 긴 이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이주할 시에 현지인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를 보면,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76.4%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따라서 대부분의 한인 이주민의 최초 이주과정에 어떠한 형태든 지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응답자들이 최초 이주 시에 주거지를 선정할 때 고려한 요소들의 중요도에 대한 척도를 측정하여, 고려요소별로 리커트 척도분석<sup>3)</sup>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현지 지인의 추천이 3.68, 한인네트워크(한인타운)의 근접성 3.15, 주류 상류층과의 네트워크 2.63 순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미국으로 최초 이주과정에서 주거지를 선정할 시에 미국 현지에 먼저 정착한 이주민의 도움과 추천을 보통이상으로 고려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상당수의 응답자들은 최초 주거지를 선정할 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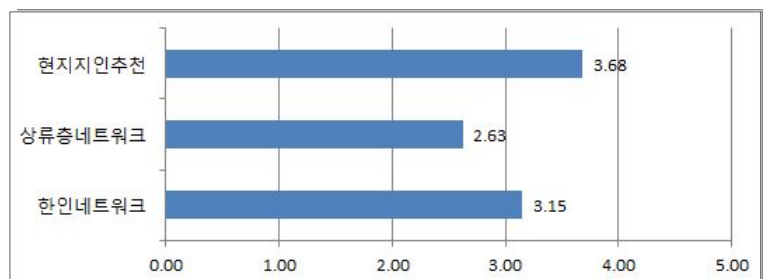


그림 1. 최초 이주시 고려요소별 리커트 척도점수

한인네트워크(한인타운)의 근접성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수의 이주민들이 최초 이주시에 영어 구사능력도 부족하고 미국 현지에 대한 정보도 적기 때문에, 한인이 모여 있는 민족공동체인 한인타운을 우선적으로 주거지로 고려한다는 공간적 동화이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이주민의 최초 이주 및 주거지 선정과정에서 한인네트워크와 민족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응답자의 현재 정착 현황

한편, 응답자들의 현재 정착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우선, 응답자의 현재 주거지를 보면, 백인주류층 53.8%, 한인타운 32.9% 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최초 주거지와 비교하면, 최초 주거지에 비해 백인주류층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초기에 한인타운에 주거지를 결정한 이주민들 중 상당수가 정착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면서 주류사회의 네트워크가 있는 백인거주지로 주거지를 이동한 것, 다시 말하면 공간적 동화를 시도한 결과<sup>4)</sup>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응답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구조를 보면, 자가주택이 51.3%, 임대주택이 49.7%인 것으로 나타난다. 임대주택 거주자 중에서 자가주택을 소유한 응답자는 12.1%로 나타나, 응답자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응답자는 총 63.4%인 것으로 나타난다. 응답자의 현재 영어 구사능

력을 최초 영어구사 능력과 비교하면, 영어능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70.3%에서 25.4%로 확연히 줄어들었는데, 따라서 상당수의 이주민들은 이주 이후 영어능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 응답자의 한인네트워크 활용 현황

한편 응답자들이 현재 한인네트워크를 분야별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리커트 척도<sup>5)</sup>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인네트워크 중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는 종교활동(3.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LA지역의 한인사회가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한인교회가 가장 보편적이고 활성화된 한인 교류 및 네트워크의 축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전(2008)의 연구를 보면, 미국의 한인교회는 단순한 종교적 예배장소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한인교회의 사회적 기능으로, 사교와 친교의 장, 한인의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승계하는 장,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는 장소, 신도 네트워크를 통한 경조사 등 상부상조의 장, 교회의 직분 부여를 통한 사회적 명망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장을 들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활용하는 분야는 쇼핑활동(3.49)으로 나타난다. 한인 이주민들은 한인마트 등을 활용한 쇼핑활동을 통해 한국의 음식료품, 생활용품 및 각종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데, 따라서 LA지역 한인들은 이러한 한국의 물품과 서비스에

표 3. 응답자의 현재 정착 현황

현재 주거지	한인타운	미국주류층	유색인종	기타	합계	
응답자수	74	121	20	10	225	
비율(%)	(32.9)	(53.8)	(8.9)	(4.4)	(100.0)	
주택 소유구조	자가주택	임대주택(주택소유)		임대주택(비소유)	합계	
응답자수	115	27		82	224	
비율(%)	(51.3)	(12.1)		(36.6)	(100.0)	
현재 영어능력	매우 부족	부족	보통	능숙	매우 능숙	합계
응답자수	17	40	88	53	27	225
비율(%)	(7.6)	(17.8)	(39.1)	(23.6)	(1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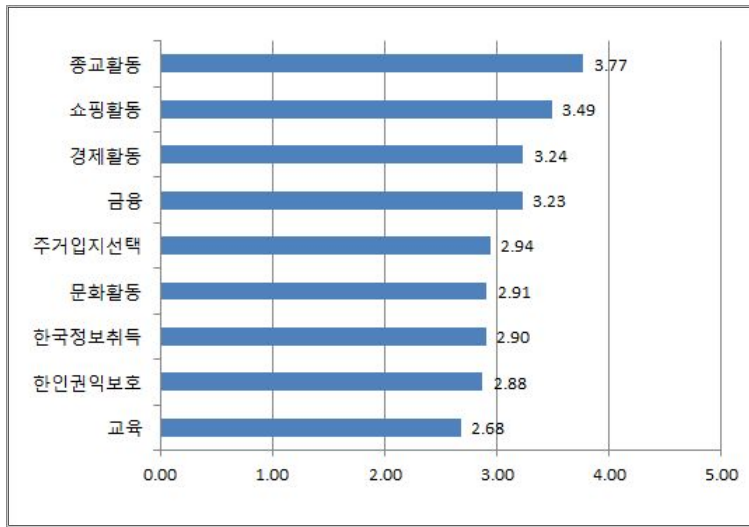


그림 2. 응답자의 한인네트워크 분야별 활용도에 대한 리커트 척도점수

대한 구매욕구와 빈도가 다른 활동에 비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된다. 세 번째로는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3.24)으로 나타난다. LA지역의 한인경제는 소상공인 위주의 스몰 비즈니스가 주축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과 취업 등의 경제활동 관계에서 한인네트워크가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네 번째로는 금융활동(3.23)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으로의 송금, 주택구입을 위한 모기지 대출 등을 위해 한국의 은행이나 현지 한인 은행들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섯 번째부터는 주거입지 선택(2.93), 문화활동(2.91), 한국 정보취득(2.90), 한인 권익보호(2.88), 교육(2.68) 순으로 나타난다. 이들 분야는 척도점수가 3점 미만으로 나타나, 주거나 교육과 같은 분야는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는 한인이 더 많음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LA지역 한인들이 강한 공간적 동화의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sup>6)</sup>, 주거와 교육분야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한 이후에는 한인네트워크보다는 백인주류층 네트워크에서 더 접근하려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 5) 응답자의 한인네트워크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한민족의 사회적 자본 및 인프라로서

한인네트워크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직접적인 수요자인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은 크게 한인조직을 활성화하는 방안, 미국 주류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 한국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한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 이상 4개로 유형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대안을

추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유형별로 14개의 구체적인 대안을 추출하였으며, 이러한 한인네트워크 대안별로 응답자들이 얼마나 활성화 필요성을 인식하는 지에 대한 척도를 측정하여, 분야별로 리커트 척도분석<sup>7)</sup>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활성화 방안을 보면, 1위 한인의 정치적 진출 확대(4.13), 2위 현지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3.96), 3위 교회 등 한인간 교류 접점의 활용(3.65), 4위 이주민 친화적인 공간기능 강화(3.55)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한국의 각종 사회단체와의 교류 확대(3.04), 한인회 조직의 역할 확대(3.07)의 경우,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은 대안들이므로 나타난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한인네트워크를 한인네트워크를 한국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목적보다는 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한인의 정치적 진출 강화, 한·미간 정부 및 민간교류의 활성화 등 미국 주류사회와의 유대강화 목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LA지역 한인 이주민들이 주류사회로의 강한 공간적 동화 의지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한인네트워크를 한민족의 사회적 자본 및 인프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즉, 한인 이주민들이 한국인으로서



한인 이주민의 정착과정에서 한인네트워크 역할 및 활용 방안

의 정체성보다는 미국 주류사회로의 동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민족 중심의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에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강력한 주류사회로의 동화 의지가 코리언 어메리칸의 전반적인 지위향상으로 이어져 결국은 한인네트워크 수준의 향상이라는 낙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하겠다.

한편, 한인 조직의 활성화 방안 중에서는 교회 등 한인간 교류 접점의 활용의 필요성이 단연 돋보인다. 이는 앞서 한인 네트워크의 활용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인교회가 가장 보편적이고

활성화된 한인 교류 및 네트워크의 축이 되고 있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한인네트워크의 중요한 축으로서 한인교회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반면, 응답자들은 한인회 조직의 역할 확대와 한인 행사·축제 활성화와 같은 대안에 대해서는 인색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는 한인회 조직이 그동안 이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행사·축제에 대해서도 인색한 평가를 하고 있다.

구 분	활성화 방안별 척도점수	순위
한인조직의 활성화		11 3 8 13 10
		6 2 1
		12 4 9
		14 5 7

그림 3. 응답자의 한인네트워크 활성화 방안별 리커트 척도점수

한국정부의 지원 방안 중에서는 이주민 친화적인 공관(영사)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평가된다. 이는 그만큼 영사관 등 한국의 외교공관들이 이주민들의 삶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공관들이 한인 이주민이 원하는 이주민 친화적인 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과의 교류강화 방안 중에서는 이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 한국 기업·금융기관의 현지 진출 확대의 필요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는 이주민들이 미국 주류 사회로의 동화를 이상적으로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종, 언어, 문화 등의 장벽 때문에 한국과의 경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과 이주민 간의 경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4. 분산분석 결과

##### 1) 최초 주거지 선택시 고려요소별 중요도

최초 주거지 선택시 고려한 요소별로 중요도에 대한 응답결과가 응답자의 특성 집단별로 차별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표 4>는 이러한 분산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첫째로, 한인네트워크의 근접성의 경우, ‘최초 이주지 LA지역’, ‘최초 주거지 한인타운’, ‘이주기간 10~20년’, ‘이주당시 연령 50대 이상’인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LA지역에 10~20년 전에 이주한 고령의 이주민들이 최초 주

거지 선택을 위해 한인네트워크의 근접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며, 그 결과 다수는 한인타운을 최초 주거지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상류층 네트워크의 경우, ‘최초이주 시 영어능력 능숙’, ‘독자적으로 주거지 선택’, ‘이주기간 1년 미만’인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최근에 이주한 이주민 중에서 영어가 능숙하며 주거에 관한 정보를 현지 이주민 도움없이 독자적으로 취득한 이주민의 경우, 최초 주거지 선택에서 상류층 네트워크를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고려했음을 볼 수 있다.

셋째로, 현지 지인추천의 경우, ‘최초이주 시 영어능력 능숙’, ‘이주민 도움 받아 주거지 선택’, ‘이주기간 5~10년’, ‘이주연령 10대 이하’인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이주민의 최초 이주과정에서 한인네트워크가 역할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LA지역에 최초 이주하고, 한인타운에 정착하고, 50대 이상의 고령자에게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한인네트워크 유형별 활용도

다음으로, 한인네트워크별로 응답자의 현재 활용도에 대한 응답결과가 응답자의 특성 집단별로 차별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표 5>는 이러한 분산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첫째로, 주거입지 선택의 경우, ‘가구소득 3만달러 미만’, ‘현재 영어능력 부족’, ‘이주당시 연령 20대’, ‘이주기간 5년미만’, ‘현재 주거지 한인타운’인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표 4. 분산분석 결과-1: 최초 주거지 선택시 고려요소별 중요도의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별성 여부

	최초이주지	최초영어능력	최초주거지	이주민 도움	이주기간	이주연령
한인네트워크 근접	** (LA지역 ↑)		** (한인타운 ↑)		* (10-20년 ↑)	** (50대이상 ↑)
상류층 네트워크		** (능숙 ↑)		** (독자적 ↑)	* (1년미만 ↑)	
현지 지인추천				** (도움 ↑)	** (5-10년 ↑)	** (10대이하 ↑)

주: \*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 \*\*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

표 5. 분신분석 결과-2: 한인네트워크 유형별 활용 중요도의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별성 여부

	연령	혼인	가구소득	가구자산	학력	현재 영어능력	미국교육 이력	이주연령	이주기간	현재 주거지	주택소유
주거임지 선택			* (3만미만↑)			** (부족↑)		** (20대↑)	** (5년미만↑)	** (한인타운↑)	
경제활동					* (고졸↑)	** (부족↑)	** (없음↑)	** (40대↑)	** (5년미만↑)	** (한인타운↑)	
쇼핑활동			* (3만미만↑)	* (30만미만↑)		** (매우부족↑)			* (5년미만↑)	** (한인타운↑)	* (임대주택유↑)
문화활동	* (60대이상↑)		** (3만미만↑)			* (부족↑)		** (50대이상↑)		** (한인타운↑)	
종교활동						* (부족↑)		* (50대이상↑)			
교육		** (기혼↑)				** (보통↑)					** (임대주택유↑)
금융	* (40대↑)		* (20만이상↑)	** (200만이상↑)		* (보통↑)	** (대학원↑)	** (30대↑)	* (5-10년↑)		* (임대주택유↑)
한국강보취득				** (200만이상↑)	* (고졸↑)	** (매우부족↑)	** (없음↑)	** (30대↑)			
한인권익보호	** (60대이상↑)	** (기혼↑)				** (부족↑)	** (없음↑)	** (30대↑)		* (한인타운↑)	* (임대주택유↑)

주: \*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 \*\*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

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집단은 이주기간이 짧거나, 저소득층이거나, 영어능력이 부족한 이주민으로, 주류사회로의 진입이 쉽지 않은 계층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 집단은 한인타운을 주거지로 더 많이 선호하고, 이를 위해 한인네트워크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경제활동의 경우, ‘고졸이하’, ‘현재 영어능력 부족’, ‘미국교육 경험 없음’, ‘이주당시 연령 40대’, ‘이주기간 5년 미만’, ‘현재 주거지가 한인타운’인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집단은 역시 이주기간이 짧고, 미국에서 교육이력이 없어 영어능력이 부족하고,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중년층인데, 이들은 주류사회를 대상으로 취업이나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계층이기 때문에 한인네트워크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로, 쇼핑활동의 경우, ‘가구소득 3만달러 미만’, ‘가구자산 30만달러 미만’, ‘현재 영어능력 매우 부족’, ‘이주기간 5년 미만’, ‘현재 주거지 한인타운’, ‘주택을 소유한 임대주택 거주’ 집단에서, 넷째로 문화활동의 경우, ‘60대 이상’, ‘가구소득 3만달러 미만’, ‘현재 영어능력이 매우 부족’, ‘이주당시 연령 50대 이상’, ‘현재 주거지 한인타운’인 집단에서, 다섯째로, 종교활동의 경우, ‘현재 영어능력 부족’, ‘이주당시 연령 50대 이상’인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쇼핑, 문화, 종교활동과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주기간이 짧고, 고령이고, 영어능력이 부족하고,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계층에서 한인네트워크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섯째로, 교육활동의 경우, ‘기혼’, ‘현재 영어능력 보통’, ‘주택을 소유한 임대주택 거주’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활동의 경우 한인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전반적으로 낮지만, 자녀를 둔 기혼자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교육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로 금융활동의 경우, ‘40대’, ‘가구소득 20만달러 이상’, ‘가구자산 200만달러 이상’, ‘현재 영어능력 보통’,

‘미국에서 대학원졸업’, ‘이주당시 연령 30대’, ‘이주기간 5~10년’인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집단은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는 성공한 이주민 계층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금융활동의 특성상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여덟째로, 한국에 대한 정보 취득활동의 경우, ‘가구자산 200만달러 이상’, ‘고졸이하’, ‘현재 영어능력 매우 부족’, ‘미국 교육이력 없음’, ‘이주당시 연령 30대’인 집단에서, 아홉째로, 한인에 대한 권익 보호활동의 경우, ‘60대 이상’, ‘기혼’, ‘현재 영어능력 보통’, ‘미국 교육이력 없음’, ‘이주당시 연령 30대’, ‘현재 주거지 한인타운’, ‘주택을 소유한 임대주택 거주’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의 정보에 대한 관심과 한인에 대한 일체감은 주류사회로의 편입이 쉽지 않은 고령자, 미국 교육경험이 없어 영어능력이 부족한 이주민 계층에서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 3) 한인네트워크 활성화 방안별 필요성의 인식도

마지막으로, 한인네트워크 활성화 방안별로 필요성 인식의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가 응답자의 특성 집단별로 차별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 결과는 앞서 분류한 4개로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1) 한인조직의 활성화 방안별 필요성의 인식도

우선, 한인조직의 활성화 방안별 필요성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표 6>과 같다. 첫째로 한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정보교류 활성화 방안의 경우, ‘기혼’, ‘영어능력 부족’, ‘이주당시 연령 40대’, ‘이주기간 10~20년’인 집단에서, 둘째로 한인회 역할 확대 방안의 경우, ‘40대’, ‘이주기간 10~20년’인 집단에서, 셋째로 한인 경제단체·기업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의 경우, ‘40대’, ‘기혼’, ‘영어능력 부족’, ‘이주당시 연령 50대 이상’, ‘이주기간 10~20년’인 집단에서 넷째로 교회 등 한인간 교류접점의 활용 방안의 경우, ‘60대 이상’, ‘기혼’, ‘영어능력 부족’, ‘이주당시 연령 50대 이상’, ‘이주

표 6. 분산분석 결과-3: 한인조직의 활성화 방안별 필요성의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별성 여부

	온라인 정보교류 활성화	한인회 역할 확대	한인 경제단체간 경제협력	교회 등 교류접점 활용	행사·축제 활성화
연령		* (40대 ↑)	* (40대 ↑)	** (60대이상 ↑)	
혼인	* (기혼 ↑)		* (기혼 ↑)	* (기혼 ↑)	
가구소득					
가구자산					
학력					
현재 영어능력	** (매우부족 ↑)		* (부족 ↑)	** (부족 ↑)	
미국교육 경력	* (대학원 ↑)			* (없음 ↑)	
이주연령	** (40대 ↑)		** (50대이상 ↑)	** (50대이상 ↑)	
이주기간	* (10~20년)	* (10~20년)	** (10~20년)	** (10~20년)	

주: \*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 \*\*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

기간 10~20년'인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많은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행사·축제의 활성화 방안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간 차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한인조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은 기혼이고, 영어능력이 부족하고, 이주당시 연령대가 높고, 이주기간이 10~20년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집단은 이주기간은 오래되었지만 고령이거나 영어능력이 부족하여 주류계층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계층이라 할 수 있는데, 따라서 한인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 계층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미국 주류사회와 유대 강화 방안별 필요성의 인식도

다음으로, 미국 주류사회와 유대 강화 방안별 필요성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표 7>과 같다. 첫째로 한인의 정치적 진출 확대 방안의 경

표 7. 분산분석 결과-4: 미국 주류사회와 유대 강화 방안별 필요성의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별성 여부

	한인의 정치적 진출 확대	현지 정부와 협력 강화	한미 우호 민간교류 활성화
연령	* (40대 ↑)	** (40대 ↑)	
혼인			** (기혼 ↑)
가구소득	* (10-20만 ↑)		
가구자산			
학력			
현재 영어능력			
미국교육 경력			* (대학교 ↑)
이주연령			
이주기간	* (5-10년)		

주: \*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 \*\*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

우, ‘40대’, ‘가구소득 10~20만달러’, ‘이주기간 5~10년’인 집단에서, 둘째로 현지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방안의 경우, ‘40대’ 집단에서, 셋째로 한·미 우호를 위한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의 경우, ‘기혼’, ‘대졸 이상’인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많은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미국 주류사회와 유대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주로 40대 기혼으로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집단은 경제활동 능력이 왕성하고, 주류사회로의 동화 의지가 강한 계층으로 볼 수 있는데, 따라서 미국 주류사회와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한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 계층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한국정부의 지원 방안별 필요성의 인식도

다음으로, 한국정부의 지원 방안별 필요성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표 8>과 같다. 첫째로 재외한인 정보교류를 위한 한민족 네트워크 웹사이트 구축 방안의 경우, ‘기혼’, ‘현재 영어능력 매우 부족’

우 부족’, ‘미국에서 대학졸’, ‘이주기간 10~20년’인 집단에서, 둘째로 이주민 친화적인 공공기능 강화 방안의 경우, ‘40대’, ‘기혼’, ‘현재 영어능력 매우 부족’, ‘이주당시 연령 40대’, ‘이주기간 1~5년’인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많은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인 행사·축제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간 차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한국정부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주로 40대 기혼으로, 이주기간은 일정기간 지났지만 영어능력은 여전히 부족한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주민 친화적 공간 기능에 대한 정책수요가 이들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한국과의 교류 강화 방안별 필요성의 인식도

마지막으로, 한국과의 교류 강화 방안별 필요성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표 9>와 같다. 첫째로 한국 기업·금융기관의 현지진출 확대 방안의 경우, ‘40대’, ‘기혼’, ‘현재 영어능력 보통’, ‘미국에서 대학졸’, ‘이주당시 연령 30대’, ‘이주기간 1~5년’인 집단에서, 둘째로 한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의 경우, ‘40대’, ‘기혼’, ‘현재 영어능력 보통’, ‘미국에서 대학졸’, ‘이주당시 연령 30대’, ‘이주기간 10~20년’인 집단에서, 셋째로, 한국 사회단체와의 교류확대 방안의 경우, ‘기혼’, ‘현재 영어능력 매우 부족’, ‘미국에서 대학졸’, ‘이주당시 연령 40대’, ‘이주기간 1~5년’인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많은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한국과의 각종 경제활동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집단은 경제활동이 왕성한 40대 기혼이며,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여 영어능

표 8. 분산분석 결과-5: 한국정부의 지원 방안별 필요성의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별성 여부

	한민족 네트워크 웹사이트 구축	이주민 친화적 공간 기능	행사·축제 재정지원
연령		* (40대 ↑)	
혼인	** (기혼 ↑)	* (기혼 ↑)	
가구소득			
가구자산			
학력			
현재 영어능력	** (매우부족 ↑)	* (매우부족 ↑)	
미국교육 경력	* (대학교 ↑)		
이주연령		** (40대 ↑)	
이주기간	* (10-20년)	** (1-5년)	

주: \*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 \*\*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

표 9. 분산분석 결과-6: 한국과의 교류 강화 방안별 필요성의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별성 여부

	한국 기업의 현지진출 확대	경제교류 활성화	사회단체와의 교류 확대
연령	* (40대↑)	* (40대↑)	
혼인	** (기혼↑)	** (기혼↑)	** (기혼↑)
가구소득			
가구자산			
학력			
현재 영어능력	** (보통↑)	** (보통↑)	** (매우부족↑)
미국교육 경력	** (대학교↑)	** (대학교↑)	** (대학교↑)
이주연령	** (30대↑)	** (30대↑)	** (40대↑)
이주기간	* (1-5년)	** (10-20년)	* (1-5년)

주: \*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 \*\*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

력도 어느 정도 갖춘 계층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주류계층으로의 동화도 시도하지만, 이와 동시에 한국과의 경제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싶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한인네트워크의 정책적 초점은 이들 계층에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5.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 1) 분석결과 요약

지금까지 미국 LA지역의 한인 이주를 대상으로, 한인 이주민의 정착과정에서 한인네트워크 역할을 살펴보고, 한인네트워크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국으로의 최초 이주 및 주거지 선정 과정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한인네트워크와 민족공동체인 한인타운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한인네트워크의 역할은 LA지역에 최초 이주하고, 한인타운에 정착

하고, 현지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50대 이상의 고령자에게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로, 한인 이주민의 분야별 한인네트워크 활용 현황을 보면, 응답자들은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활동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쇼핑활동, 경제활동, 금융활동과 같은 일상생활 및 경제관련 활동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주거입지 선택과 교육 분야에서는 한인네트워크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주거, 쇼핑, 문화, 종교와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의 경우, 대체적으로 이주기간이 짧고, 고령이고, 영어능력이 부족하고,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등 미국 주류사회에 편입이 어려운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금융활동의 경우는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는 성공한 이주민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로, 한인 이주민의 한인네트워크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응답자들은 한인네트워크를 한인의 정치적 진출 강화, 한·미간 정부 및 민간교류의 활성화 등 미국 주류사회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한인회 조직의 역할 확대와 한인 행사·축제 활성화와 같은 대안에 대해서는 인색한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한인조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은 이주기간은 오래되었지만 고령이거나 영어능력이 부족하여 주류계층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반면, 미국 주류사회와 유대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경제활동 능력이 왕성하고, 주류사회로의 동화 의지가 강한 계층에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한국과의 각종 경제활동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주류계층으로의 동화도 시도하지만, 이와 동시에 한국과의 경제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싶은 집단에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인네트워

크의 활성화 방안들은 집단별로 차별적인 선호가 나타나는데, 이에 따라 활성화 정책들도 이주민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정책 방안 및 시사점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한민족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민족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해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는 필요한데, 이러한 활성화 방안들은 한인 이주민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림 4>는 미국 LA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모형을 제시하였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LA지역 한인네트워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오프라인 조직은 한인교회와 경제단체로 확인되는데, 따라서 이러한 한인교회와 경제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활성화 모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민족공동체로서 한인네트워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인교회를 한인네트워크에서의 생활 및 문화교류의 핵심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인교회는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신뢰하는 네트워크이고 이러한 점은 윤성석(2006)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한인교회가 네트워크의 핵심이 되는 것은 미국 한인사회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역할과 위상에 기인하는데, 특히 주류 계층에 진입하기 어려운 한인 이주민의 경우 한인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한인교회를 통해, 생활정보를 교류하고, 이주정보를 구하고, 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접점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각종 문화교류 및 생활정보의 교환의 접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한인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거점 한인교회를 지정하여, 이러한 한인교회가 교류의 접점이 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네트워크화 하기 위한 조직과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인교회가 이주민은 물론 한

국에 거주하는 잠재 이주민의 종합적인 이주지원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한인네트워크와 미국 주류사회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인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인 경제단체를 한인네트워크에서의 경제 및 정치교류의 핵심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제단체의 역시 한인들이 신뢰하고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다. 한인 경제단체는 한인간의 경제교류의 접점이 될 뿐만 아니라, 한인과 미국 주류사회간의 교류 및 한인이 미국 주류사회에 정치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한인과 한국기업 간의 교류, 즉 한상 네트워크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인 경제단체들이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한인의 경제교류 접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인 경제단체 조직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네트워크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경제단체를 선별하여, 이러한 경제단체가 한상 네트워크 그리고 한·미간 경제네트워크의 축이 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네트워크화하기 위한 조직과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온라인 네트워크로서 한민족 포털을 구축하고, 이를 LA지역 한인포털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가 주도하여 한민족 포털을 구축하고, 이를 각 지역의 한인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한민족 포털 내에는 한상 네트워크, 이주민 정보교류, 한민족의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콘텐츠를 구축하고, 이를 온라인상의 경제 및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인네트워크를 묶어주는 도구로서 재외공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인과의 인터뷰결과에서 나타난 현재의 재외공관의 역할은 VIP 의전 역할에 치우쳐 있어, 한인의 권익보호와 네트워크 활성화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민 친화적인 재외공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는 재외공관이 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인의 경제교류 및 정치적 진출을 실질적으로 증대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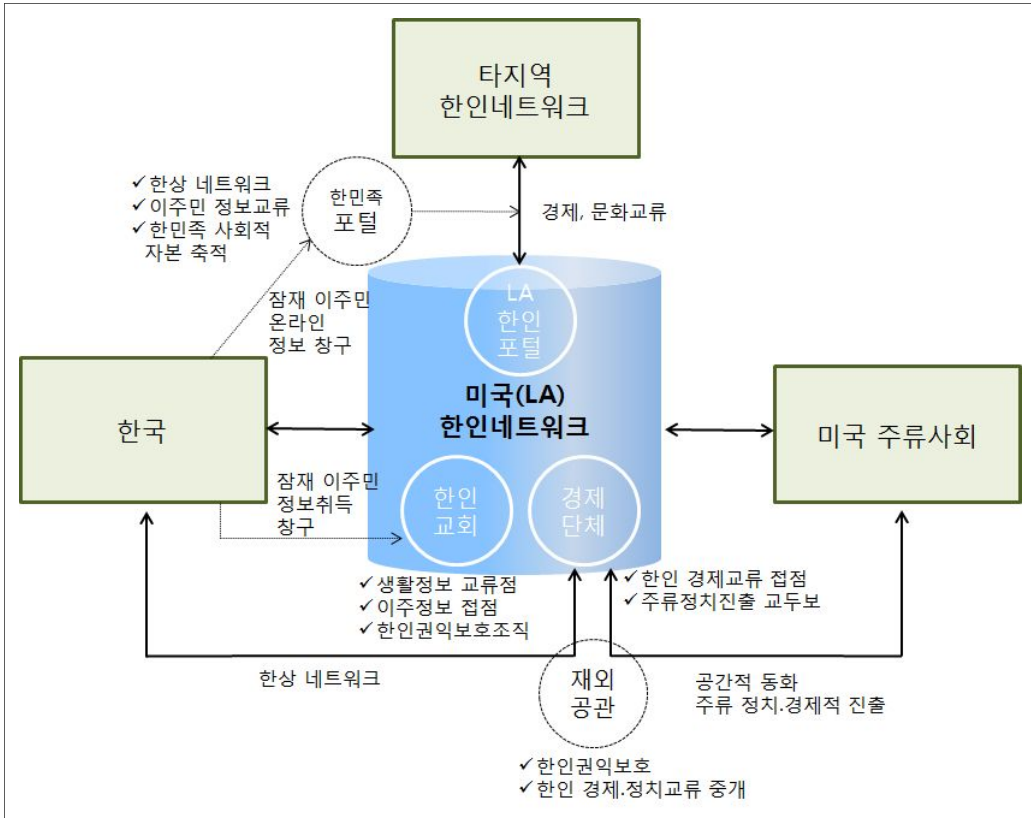


그림 4.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모형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재외공관의 경우 공신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직보다 네트워크를 묶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외공관이 한인교회, 경제단체, 한인포털 그리고 기타 한인단체들이 효과적으로 네트워크화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3) 결론

지금까지 미국 LA지역의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인 이주민의 정착과정에서 한인네트워크 역할을 살펴보고,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인네트워크는 이주민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활발한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주민들은 이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는 사회

적 자본으로서 한민족 네트워크의 구축의 중요한 일부분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민족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상호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민족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정보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학술적 정책적 성과는 미국의 한인 이주민뿐만 아니라, 유럽, 호주, 일본, 중국 등의 한인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주

- 1) 공간적 동화이론과 다원론에 대한 내용은 윤인진(2012), 박원석(2015)를 주로 참조하였다.
- 2)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조사 자료는 박원석(2015)의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조사와 기본적으로 같은 소스를 활용하였다. 다만, 박원석(2015)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문항에서는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

라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한 유효 설문지의 개수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두 연구의 설문조사 소스는 같으나, 분석에 들어간 모집단에서는 차이가 있다.

- 3) 리커트 척도점수는 5점 만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전혀 고려하지 않음을 1점, 매우 고려함을 5점으로 부여하였다. 따라서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들이 고려요소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여기에 대한 연구성과는 박원석(2015)에서 상세히 볼 수 있다.
- 5) 리커트 척도점수는 5점 만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전혀 활용하지 않음을 1점, 매우 활용함을 5점으로 부여하였다. 따라서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들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6) 이는 박원석(2015)의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7) 리커트 척도점수는 5점 만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전혀 필요하지 않음을 1점, 매우 필요함을 5점으로 부여하였다. 따라서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문헌

- 박원석, 2012, 한인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 및 주거입지 선호 특성 -미국 워싱턴 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5(4), 660-675.
- 박원석, 2015, 미국 LA지역 한인 이주민의 정착경로 및 주거입지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1), 17-44.
- 안현호·정연선, 2006, 미국에서의 한인 금융: 캘리포니아에서 한국계와 중국계 은행의 비교,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1), 154-171
- 양진운, 2011, 미국 한인이민자 초기 이민 적응과정 연구: LA 한인타운 지역민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1, 113-142.
- 윤성석, 2006,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재외 한인단체의 활동: 미국 LA와 New York 한인단체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9(2), 187-210.
- 윤인진, 2003,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 37(4), 101-142.
- 이전, 2008, 재미한인2세들의 교회 활동과 정체성 문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5), 573-586.
- 장선미, 2004, 재미한인 경제 현황 분석: 미국 5개지역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30, 151-171.
- 전형권, 2012, 한국의 차세대 한인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재외한인연구, 26, 207-252.
- 정수열, 2010, 이민자의 주거 집중이 자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국토지리학회지, 44(1), 25-34.
- Hyun, Kyoung Ja, 2001, Sociocultural change and traditional values: Confucian values among Koreans and Korean America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5, 203-229.
- Park, Edward J. W., 1999, Friends or Enemies?: Generational Politics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Los Angeles, *Qualitative Sociology*, 22(2), 161-175.
- 교신: 박원석,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부동산학과, 전화: 053-850-6381, 이메일: wspark@daegu.ac.kr
- Correspondence: Wonseok Park, Department of Real Estate, Daegu University, Jillyang, Gyeongsan, Gyeongbuk 712-714, Tel: 053-850-6381, e-mail: wspark@daegu.ac.kr
- (접수: 2015.03.31, 수정: 2015.04.30, 채택: 2015.05.07)